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 건축사 회원 한목소리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 모인 건축사 회원,

“셀프감리·특혜부여법 즉각 철회” 요구

전국 건축사 권기대회 통해 개정안 부당성 알려...

궐기대회는 5월 8일까지 이어져

“행정 효율 앞세운 계약이 국민 안전 뒤흔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5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는 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건축사 회원들의 합성으로 뒤덮였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에 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안전을 주목
적으로 하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보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
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비상대책위원, 17개 시도건축사회가 참여한 '전국 건축사 쫓기대회' 전경.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본회의 임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장 및 위원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인천광역시건축사회·전
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전라남도

건축사회 등 전국에서 모인 건축사 회원들이 운집했다. 이들은 명부에 없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허용이 발주청, 지자

체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면서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인 안전을 등한시하고 절차상 비효율 개선만을 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테면 공기단축,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업관리와 붕괴·전도 등 위험요인을 통제하는 해체공사감리는 업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 2면 계속

“감리 독립 바로 세워 국민 안전 지켜내자”...
전국 건축사 쉼기대회 2일 차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 본연의 독립성·견제·균형 무너뜨려”



국토부 청사 앞을 지나고 있는 건축사 펴기대회
 행진 인파가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이루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반대 전국 건축사 쟁기대회를 가졌다. 2일 차 대회에는 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경북건축사회 회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춘하 비상대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쉼기대회에서 대한건축사

협회 김재록 회장은 “이른 새벽부터 한 걸음에 끝기대회 현장을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협회는 입법에 고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여기 모여 주신 회원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최원식 비상대책위원(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경과보고 후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 6면 계속

“행정 효율보다 국민 안전 최우선 해야”...전국 건축사 궐기대회 성료

“설계와 감리, 건축사의 중요한 권리...”

감리 제도는 발주자 편의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냐”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반대 전국 건축사 쫓기대회를 가졌다. 5월 6일부터 시작해 3일 차를 맞은 이날 쫓기대회에는 서울·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건축사회 회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한 비상대책위원(대한

건축사협회 이사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궐기대회는 건축사의 사회적 품위에 걸맞게 질서 정연하면서도,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3일 내내 이어진 궐기대회에도 지친 기색 없이 회원들은 높은 호응을 보이며, 개정안 철회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 6면 계속

eGEN & Drawing
1,000 만원으로
평생 사용 하세요!



프로모션 자세히 보기

▶ 1면<“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 건축사 회원 한목소리>에서 계속

더불어 공공을 대신해 해체공사 과정의 안전을 통제하는 해체공사 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 경제, 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명부 작성 등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계약 및 이해관계에 따른 종속 구조로 인해 독립적인 통제가 어려워질 경우 이는 부실감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광주 화정동, 인천 검단 아파트,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현장 모두 건설사업관리가 이뤄진 바 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대규모 해체공사 현장에 동원한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관리가능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취약해지고, 업무상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체공사가 동시 진행 시 감리원 또한 동시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중복·허위 배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관리·통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반대

전국 건축사 총 쫓기대회’는 6일 오전 10시30분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비상대책위원회 홍성범 위원(사회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본협회 임원,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조충기 명예회장,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회장,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반대 건축사 총 쫓기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정내수, 정광영 공동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건축사 회원들이 참석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이곳 쫓기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박성준 위원(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의 경과보고 후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정내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는 건축인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다”며 “전국 건축사의 뜻이 하나로 모일 때 그 어떤 정책도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추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국 건축사 쫓기대회’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감리 독립 바로 세우자’

계속해서 연대발언이 있었다. 연대발언에는 비상대책위원회 김지한 위원(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박춘하 위원(대한건축사협회 대외협력단장), 김영철 위원(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연대발언에 나선 김지한 위원은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건설사업관리와 오직 안전을 추구하는 해체공사 감리는 그 출발부터 다르다”라며 “우리 건축사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우리의 요구는 국민 생명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원칙일 뿐”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춘하 위원은 “독립성 없는 감리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서 “발주청과 계약관계로 묶여 있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 마지막 순서로 나선 김영철 위원도 “건축물 해체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다”라며 “해체공사 감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개정안을 즉시 중단하고,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 감리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즉각 폐기하라”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입법 행태에 반대하는 정광영 비상대책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참여한 건축사들은 행정효율만 앞세워 감리제도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이런 졸속입법을 강력히 규탄하는 의미로 결의문과 구호를 제창했다.

계속해서 자유발언 시간이 주어졌다.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명예회장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강남구지역건축사회 박봉준 회장이 무대에 올라 “국민 안전을 책임지라고 건축사에게 자격을 부여한 국토교통부가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내팽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발언 이후에는 30여 분간의 거리행진이 진행됐고, 행진이 끝난 뒤 다시 쫓기대회 장소에 모여 구호를 외치며 2일차 쫓기대회 일정을 기약했다.

한편,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건축사협회는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전국 건축사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할 것”이라며 “감리독립을 바로 세워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관희 기자

전국 건축사 쫓기대회 1일차 화보



1 5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개정 반대 전국 건축사 쫓기대회'가 진행됐다. 2 비상대책위원회 정내수 위원장이 개회사를 밝히고 있다. 3 비상대책위원회 홍성범 위원의 사회로 이날 대회가 시작됐다. 4 비상대책위원회 김지한 위원의 연대 발언 모습. 5 비상대책위원회 박춘하 위원의 연대발언 모습. 6 비상대책위원회 김영철 위원의 연대발언 모습. 7 정광영 비대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8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명예회장의 자유발언 모습. 9 강남구지역건축사회 박봉준 회장의 자유발언 모습.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전국 건축사 쫓기대회 2일차 화보



1 전국 건축사 쫓기대회 2일 차 행사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진행됐다. 2 비상대책위원회 최원식 위원의 경과보고 모습. 3 비상대책위원회 양정식 위원이 연대발언에 나서고 있다. 4 비상대책위원회 이재진 위원의 연대 발언 모습. 5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강미숙 회장이 연대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전국 건축사 쫓기대회 3일차 화보



1 경과보고에 나선 비상대책위원회 강필서 위원. 2 연대발언에 나서고 있는 정병거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장. 3 한민국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 연대발언에 나서고 있다. 4 자유발언에 참여한 김준봉 건축사·한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충청북도건축사회. 5 자유발언 중인 비상대책위원회 박성준 위원.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동정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한준호 국회의원과 면담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국회의원에게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철회 건의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5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에 초청 인사로 참석해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와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소속 한준호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김재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금번에 입법 예고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설명하고, 감리 독립성 훼손과 안전관리 체계 약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 공사 감리 우선 지정 방안이 감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입법 취지와 현장 간 괴리,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안전 공백과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예상될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김재록 회장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철회와 함께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을 건의했다.

박관희 기자

전국 건축사 권기대회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철회 요구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5월 6일부터 3일간 열린 ‘건축물관리법령 개정 반대 전국 건축사 권기대회’에서 참가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열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반대 전국 건축사 권기대회’에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참가해 이번 입법예고의 부당성을 알리며, 대회에 참여한 건축사 회원들을 격려했다.

김재록 회장은 “감리 독립을 바로 세워 국민 안전을 지켜내고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협회는 세종에 모인 회원들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번 개정안이 회원들의 뜻대로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재록 회장은 “행정절차 효율 개선이 건축물과 국민들의 안전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건축물 안전과 품질확보라는 감리의 근본 본질이 훼손돼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회가 물러서지 않는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 건축사 권기대회에는 15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참가해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이 “입법취지를 무력화하고, 발주청과 지자체의 행정편의에만 목적을 두고, 국민 안전을 포기했다”면서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를 분명히 했다.

박관희 기자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5월 12일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5월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2층 김순하홀에서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을 개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 1차 서류 심사 및 2차 PT심사를 진행한 후 심사결과를 공람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품목을 확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건축자재추천의 경우 제16차 건축자재추천 교부식이 지난 5월 7일 열린 바 있다.

김재록 회장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오는 10월 개최될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참여를 당부드리며, 협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4월 22일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교육 업무에 적극적인 동참 당부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는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수립과 과목심사 ▲연계 교육 내용 검토 ▲정부 위탁교육 계획 수립 ▲사이버교육 개설 관련 교안

검토 등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건축사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건축사 실무교육 등 교육 업무는 건축사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KIRA Policy & Planning

제5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최...권기대회 통해 회원 의지 확인

“국토부와 대화 지속하며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응을 위한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건축사 권기대회 이후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12일 제5회 위원회를 개최하며 “회원들의 협조로 전국 건축사 권기대회를 안전 사고 없이 일단락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고,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대응과정에서도 개정안 철회를 위한 원칙을 지켜 나

갈 것”임을 확인했다.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한 점 없는 환경에서 개정안 반대를 위해 힘껏 목소리를 내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동참으로 국토부도 행정 효율에 앞서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길 바란다”며 “국토부와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5월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에서 제5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반대를 위한 전국 건축사 권기대회 개최결과 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비대위에서는 6월 둘째 주 경 국토교통부와 면담 약속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비대위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박관희 기자

교육청의 갑질,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 기준 중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설계업무는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기존 건축물에 추가적인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업무 수행 시 기존 건축물의 실측, 주요 구조부에 대한 조사 등 사전업무가 포함이 되므로 설계업무가 추가적으로 가산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많은 건축사들이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해당 업무대가를 산출한 것에 비해 교육청에서 기준으로 삼는 업무대가가 현저히 낮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 이유는 15배는커녕 계획설계와 중간설계 단계를 제외하고 실시설계 단계만 인정하여 Q6배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마감재를 철거하는 것에 대한 조사와 도서작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 또는 워크숍 진행 등이 대가산정 없이 업무에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1만 1,800개가 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통계자료는 없지만 해마다 수천 건의 부분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설계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과정에서 수의시답이 진행되는 것은 차치하고 서라도 기준금액 자체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례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니 과거에는 업무를 발주할 때, 관련 부서에서 직접 최소한의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계획설계와 중간설계에 해당하는 업무대가를 제외하였으며, 현재는 이러한 도서 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대가 산정이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업무대가 산정뿐 아니라 마감재료 선정에 대한 문제도 있다. 건축사가 주요한 마감재를 선정하고 색상과 품번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주처나 사용자의 의견을 모아 재료 상세 스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사가 재료를 결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미적 인상과 사용성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데, 이를 설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변경해 버리면 계획과 다른 인상의 건물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가 재료를 상세하게 결정하고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적용되는 반면, 업무대와 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해마다 수천 건의 대가산정 오류가 있었을 것인데 왜 같은 오류가 지속되고 있는가. 민간의 경우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차츰 개선되리라 기대하지만, 공공에서 기준을 무시하고 오래된 악습을 기준 삼아 건축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언제 바꿀 것인가. 국무회의 때 지적받고 바꾸지 말고, 지금 정상화하라.

설계비가 미끼 상품인가: 비전문가가 설계하는 위태로운 건축현실



건축법규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며 복잡하고 방대한 법규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축주를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다. 전문가로서 정확한 법적 해석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는 자못 우려스럽다. 건축사의 신중한 검토보다 비전문가의 호언장담이 더 매력적으로 소비되는 시장의 현실 때문이다.

얼마 전, 노후 건축물을 매입해 대수선을 준비하는 건축주와 미팅을 가졌다. 그 자리에는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와 이른바 ‘컨설팅’ 또는 ‘공간기획자’라 불리는 이들이 동석했다. 건축사에서 법령에 근거해 불가능한 계획임을 설명하자, 상대방은 비전문적이고 비법률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이 지역 생리를 잘 아는 건축사와 하면 다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거래 성사가 최우선인 그들에게 건축사가 젊어져야 할 법적 책임이나 공공의 안전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 보였다. 원칙을 설명하는 전문가가 오히려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인테리어업자, 일부 건

설사들의 영업에서 ‘건축 설계 및 인허가 포함’이라는 문구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건축사 면허가 없는 이들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일을 수행하지 않는 이들이 건축사의 설계대가를 본인들의 영업을 위한 ‘미끼 상품’처럼 게시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뿌려진 무책임한 가격들이 시장에서 마치 ‘정가’처럼 통용된다는 점이다. 실무의 깊이와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파괴적인 가격표는 건축주들에게 건축사의 정당한 업무대가를 과도한 비용으로 오인하게

시간당 상담 비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현장에서 당당히 그 대가를 수령한다. 이는 단순히 수입의 문제를 넘어,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책임과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반면 건축사들은 어떠한가. 복잡한 법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고도의 지적 노동이 여전히 ‘무료 서비스’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협회 차원에서 건축사 상담 업무를 공식적인 유료 서비스로 표준화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업역 침범과 대가 왜곡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의 상담이 ‘공짜 정보’가 아닌 ‘책임 있는 자문’으로 인식될 때, 건축사의 위상도 바로 설 수 있다.

자본주의의 대원칙은 간명하다. ‘싸고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공공적 행위다. 위험성을 담보로 한 프로젝트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건축사들은 이제 좋은 가치를 제값에 파는 시장을 당당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기술적 테두리 안에서 건축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구현해내는 파트너다. 비전문가의 달콤한 목소리가 설계 시장을 뒤흔드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전문성의 가치를 지키고 그에 합당한 질서를 요구해야 한다. 제값을 치르고 얻은 전문가의 조언이야말로 건축주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이다.

좋은 가치 제 값에 파는 환경

다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

만든다. 실무를 책임지지 않는 이들에 의해 건축사의 가치가 임의로 재단되는 현실은 지극히 위험하다. ‘비용이 저렴하고, 위법을 눈감아주는 것이 실력’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결국 건축주에게 법적 리스크와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필자가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며 느끼는 점은, 건축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결코 ‘불법’이 아니라 ‘복잡한 법규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가이드’라는 사실이다.

이제는 전문가의 지적 자산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경우,

HIMPEL
숨쉬는 집®



집을 숨쉬게 합니다, 힘펠



2024-2025 2년 연속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환기대전 부문 - 한국 소비자 포럼 선정

욕실 환기가전



휴젠뜨 루미

공기·습도·온도까지 한 번에 관리
하루 흐름에 맞춰 공간을 바꾸는 LED 조명



휴젠뜨 3

환기·온풍·제습·드라이로 더 쾌적해지는 욕실
무드조명과 음악이 더하는 편안한 휴식

주방 환기가전



휴클라 스퀘어 후드

조용하지만 강력한 주방 환기
정풍량 설계로 강력한 흡입력
요리 후에도 상쾌한 주방 공기

시스템 환기가전



휴벤 ECO

각실 맞춤 환기로 집 전체 공기를 관리
에너지 손실은 줄이고 쾌적함은 최대화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사이의 관계

특별칼럼

이규황 건축사/변호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 관리·품질 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언뜻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안에 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감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동일한 것처럼 이해하여 순환정의의 오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맥락과 목적에서 각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 표현을 오류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감리의 정의규정 내용은 감리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중의 특정 유형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리

는 건설사업관리 전체 업무 중에서 시공단계에서 적법하고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특정 업무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해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 역시 그와 같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는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된, 또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감리업무를 특별히 규율하는 법률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 협회 및 관련 단체, 나아가 국민 전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2013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의 감리제도는 건설사업관리제도 하에 흡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종래의 책임감리는 “감독권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시공관리/검측관리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리는 건설사업관리 제도 내에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서 여전히 “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그 개념적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를 건설사업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례 역시 건설사업관리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고 명시하여,

감리제도의 독립적 근간을 흔들고,

직무상 이해충돌로 인해

안전 감시망이 무력화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야기할 것

감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19구합54960판결 참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각각의 목표지향성이 어디로 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본질적으로 발주자의 대리인이고, 건축주를 대신해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

를 절감하며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사업성을 위해 장부를 보며 주관알을 튕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감리업무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감리자는 비록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업무의 목적과 지위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와 발주자를 견제하여야 하는 독립적인 감시자입니다. 감리자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 공사를 멈춰 세우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리업무가 건설사업관리의 일부로 정의되어 있다는 형식을 근거로 두 직무가 본질적으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이 감리를 건설사업관리의 하위 개념으로 둔 취지가 곧 감리자가 가진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감시자’라는 기능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감리업무는 본질적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므로, 건축주에게 감리자 지정권한이 유보된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감리자 지정권한을 건축주로부터 허가권자에게 이전하고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7.5.25. 선고 2016헌마516결

정 재판요지 참조)

이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각각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기존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그 사업의 일부가 되는 해체감리를 우선하여 맡기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고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해체공사의 감독권을 그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곧바로 부여하는 것은, 안전 관리라는 공익적 가치를 건축주의 사업성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해체공사처럼 매 순간이 돌발 상황일 현장에서, 발주자의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감시자적 관점에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사를 멈추는 자기부정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국 민간이든 공공이든 사업주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대규모 건설사업의 효율화’라는 사익이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잡아먹는 순간, 어떤 사업관리제도도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감리 제도의 독립적 근간을 흔들고, 직무상 이해충돌로 인해 안전 감시망이 무력화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사업주체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제적 효율과, 이로 인하여 훼손될 공익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하게 될 비용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더욱 냉정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의 회의는 모두의 이익으로

특별기고

정민교 건축사
(주)에스티에이 건축사사무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공연 중 울리는 전화 벨소리만큼 공연을 망치는 것은 없다. 고작 4~5초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한번 흐름이 깨어지면 연주자도 관객도 좀처럼 연주에 집중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것은 공적인 시간에 지극히 사적인 사건이 개입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가 공과 사의 구별에서 유지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우리 건축계에도 이와 같은 공과 사의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인 시간이 방해받는 일이 있었다. 하물며 벨소리 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적인 욕망을 담은 주장이 정기총회라는 공적 시간을 침해하는 일이 거듭 발생한 것이다.

지난 3월 24일,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700명이 넘는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0주년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준비된 순서에 따라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건축사신문이 본인의 글을 게재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모 원로 회원이 30여 분 가량 마이크를 놓지 않아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었다. 1년에 한 번 건축사회의 살림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시간이 지극히 개인적인 발언과 행동 때문에 지체되면서 정작 준비된 안건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를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 개최된 대한건축사협회 제60회 정기총회도 개인의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2월 26일 개최된 이 행사에서 모 지역건축사회장도 안건에 없는 내용으로 발언을 이어가 총회장이 어수선히 해결된 뿐만 아니라 총회의 성격이 다소 변질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3월 5일에 개최된 건축사공제조합 정기총회도 다를 것 없었다. 이사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의 보고에 이어 조합원의 질의가 있었으나 일부 임원들의 방해로 해당 조합원의

의견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없었고, 회의의 본질이 희석되었다.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의결의 구속력이 보장되는 최고 의사결정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인 공간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상식이자 공동체 의식의 발현

기구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무리한 주장이나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로 말미암아 중요한 의사결정이 소홀하게 다뤄질 우려가 있

고, 절차적 오류를 범해 총회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나아가 총회의 실효성마저 의심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장기적인 건축경기 악화로 인해 회원의 고충이 심각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전체의 점진적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단합의 장이 되어야 할 총회가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구현하고자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단합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궁리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내용과 형식을 갖추지 않은

날 선 비판과 주장은 과연 누구의 이익이 될 것인가.

개인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해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인 공간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공동체 정신이 훼손되는 장면을 보는 일은 괴롭다. 하물며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협회의 시간이라면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모두를 위한 회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좇아야 할 것이다.



▶ 1면<“감리 독립 바로 세워 국민 안전 지켜내자”...결기대회 2일 차>에서 계속



5월 7일 이어진 결기대회에는 600여 명의 건축사 회원들이 동참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정내수 위원장은 “감리는 사고를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이며, 건축사가 국민을 대신해 현장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국토부가 앞장서 행정편이라는 이름으로 흔들고 있다”라며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건축사를 대표한 연대 발언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연대 발언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양정식 위원(경기도건축사회 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이재진 위원(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감미숙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의 발언이 이뤄졌다. 양정식 위원은 “이해관계자가 감리를 맡는 셀프감리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하며, 행정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안전의 가치를 훼손하는 탁상

행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진 위원 역시 “해체공사 감리의 독립성 파괴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감리제도의 심장은 곧 독립성이며, 국민을 위해 건축사가 이를 반드시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미숙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은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이 스스로에게 특혜를 준다면 민간은 과연 이 제도를 정당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연대발언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정광영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과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자유발언은 결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 중 즉석에서 거수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이날 자유발언에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박동조 건축사, 경기도건축사회 윤의식 건축사, 경기도건축사회 이주용 건축사가 참여했다.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된 거리행진에서는 결기대회 참가자들이 모두 참여, 구호를 제창하며 이동했다.

박관희 기자

▶ 1면<“행정 효율보다 국민 안전 최우선해야”...전국 건축사 결기대회 성료>에서 계속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본협회장은 결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국토교통부에 닿고,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들릴 수 있었으면 한다”며 “협회에서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강필서 비상대책위원의 경과보고와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정내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축인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며 “감리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찾은 건축사들의 연대발언 시간도 마련됐다. 비상대책위원 홍성범 이사, 정병거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한민규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이 연대발언자로 나섰다. 홍성범 이사는 “해체공사는 단순한 철거 작업이 아니다”며 “건물을 부수는 것은 짓는 일보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체공사 감

리는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이며, 판단착오, 방심,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작업”이라며 “행정 효율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정병거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장은 “감리의 핵심은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며 “감리 제도는 발주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리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민규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은 “현장에 부재한 감리자가 어떻게 위험을 막을 수 있겠냐”며 “행정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복수의 현장 감리를 허용하는 것은 안전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안전을 무시하는 효율은 진정한 효율이 아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연대발언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인 정내수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과 자유발언 시간이 마련됐다. 결기대회를 찾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발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자유발언

에는 김준봉 건축사(한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충청북도건축사회),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김지한 비상대책위원이 발언에 나섰다. 김준봉 건축사는 “한 명의 감리자가 동시에 여러 현장을 책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위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 박성준 위원(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도 “국토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국토부에서 새로운 안을 제안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 안이 우리를 겁박하는 내용이라면,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 비상대책위원회 김지한 위원(대한건축사협회 이사)도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의 중요한 권리”라며 “건축사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더 큰 규모로, 권리 수호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유발언 이후 결기대회에 참여한 회원들이 구호를 제창하며 국토부 청사 주변을 행진하는 것으로 3일 간의 전국 건축사 결기대회를 마무리했다.

조아라 기자

‘제16차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 교부식’ 열려

22개 업체 30개 품목 선정,

협회 로고 사용 및 홍보혜택 제공

추천서 유효기간 내 한국건축산업대전 부스비 할인

“혁신적 건축자재, 안전 지키는 원동력”



추천서를 교부받은 자재업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는 5월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6차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서 교부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건축자재추천서를 받게 된 곳은 주식회사 로템에코텍의 ‘듀얼샐드(누수/악취 방지 시스템)’을 비롯해 22개 업체의 30개 품목이다. 협회는 우수 건축자재 발굴을 통해 건축품질 및 건축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2011년부터 ‘건축자재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

추천하고, 건축사에게 올바른 건축자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협회의 다양한 지원 및 홍보활동 등으로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재록 본협회장은 “혁신적인 건축자재는 안전을 지키는 기초이자 원동력”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로 건축현장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자재 개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수한 자재의 가치를 알리고 기업의

성장이 건축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기 위해 협회가 파트너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건축산업대전 집행위원회 고순만 위원장이 추천 자재업체가 받게 될 주요 혜택사항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고순만 집행위원장은 “건축사와 우수한 건축자재 업체가 서로 교류하고 상생하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건축산업대전 등을 비롯해 시도건축사협회와 교류하며 기업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제16차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은 지난해 12월 기업 신청을 시작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심사, 회원 대상 공람을 거쳐 22개 업체의 30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다. 건축자재추천을 받게 된 자재업체들은 향후 3년간(유효기간) 추천건축자재 홍보 시 협회 명칭과 로고 사용이 가능하고, 회원 대상 협회 주요 행사에 앞서 추천건축자재 정보 공지 및 홍보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추천서 유효기간 내 한국건축산업대전 부스비 할인(15%), 건축정보센터 건축자재정보서비스(kiramat.kira.or.kr) 게시, 협회 발행 신문 등 주요 기관지 홍보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 한편, 건축자재추천 및 한국건축

▶ 제16차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추천서 교부 명단			
[건축자재추천서 유효기간 : 2026.05.07(목) ~ 2029.05.06.(일) / 3년]			
순번	업체명	대표	건축자재명
01	(주)로템에코텍	허정희, 백선일	듀얼샐드(누수/악취 방지 시스템)
02	공간테크	정민시	OK파이프 행거
03			내진형 천장 경량철골 시스템
04	(주)리뉴시스템	이종용	자원순환형 복합방수시트 터보시트 GTR3000
05			에코 방수·방근 복합시트
06	(주)해성판넬	홍기국	해성 유기물 준불연 EPS
07			해성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08	(주)삼송마그마	황정준	알파복합시트
09	(주)아콘텍	라웅재	슬림형 스마트 아크치단기
10	(주)대명콘스텍	신영태	무기질 도막방수재 DM-C
11	(주)삼한씨원	한승윤, 한대곤	점토(황토) 벽돌
12			점토(황토) 바닥벽돌
13	(주)비온텍	김범호	안티화이어보드
14	(주)한진테크	최중석	무전자파 습식 바닥시스템 (난방용전열판)
15			무전자파 건식 바닥시스템 (난방용전열판)
16	(주)명가	우승희	폭조절이 가능한 비철거 방식 단열 개보수 창
17	광스틸	곽인학	스피드 블록 메탈패널
18	스틸라이트	천상현	냉간성형강(CFS) 자동화 패널라이징 시스템
19	아세아방재	나판주	내리고 승강기 판넬
20	메가판넬(주)	정승이	메가판넬(MEGAPANEL)
21	(주)에보아르코리아	이용민	포미스톤(PHOMI STONE)
22	에스와이(주)	김성덕, 홍성부	SY 테크보드(Ⅲ-A, Ⅱ-A, Ⅰ-A)
23			SY준불연테크보드(Ⅰ-D)
24	(주)하이퍼자엔더블유	박원근	초경량 다중공기층 고단열 유리
25	(주)에니락	이현진	푸시풀 타입 KS 안전 손잡이(튜블러 20형)
26			푸시풀 타입 KS 안전 손잡이(상자형 70M)
27	(주)민예	이미선, 권혁준	GIMP(단열복합판)
28	(주)화영	박봉제	내진형 불연 / 흡음천장 패널시스템
29	동국씨엠(주)	박상훈	럭스틸
30			럭스틸 라인패널

(자료=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원팀)

산업대전 관련 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원팀 (02-3415-6876~7)

으로 하면 된다. 조아라 기자

2026년도 협회발전 임원연수회 개최 예정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확보방안,
AI활용 위한 협회 정책 방안 등 ‘분임토의’



지난 2024년 임원 연수회 전경.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협회 주요 어젠다 및 핵심 발전 과제들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을 통해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있는 협회발전 임원연수회가 올해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26년도 협회발전 임원연수회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이번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는 본협회 임원과 각 원(센터)장, 위원장 그리고 17개 시도건축사회 회장과 임원, 138개 지역건축사회 회장이 참석한다.

1일차인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연수회는 본협회 김재록 회장의 개회사 및 협회 주요 업무보고 후 바로 협회 주요 현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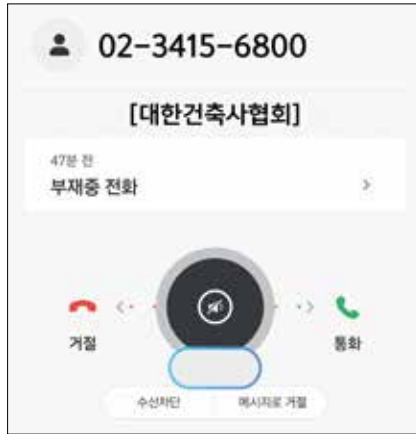
대한 분임토의가 진행된다. 분임토의는 4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별로 제시된 주제에 대해 토의 후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분임토의 주제는 ▲협회 정관 개정 등에 관한 사항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건축사사무소 AI활용을 위한 협회의 정책 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행사 이튿날에는 분임토의와 연관된 AI 실무 특별강연이 예정돼 의미를 더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재정국 관계자는 “협회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 임원연수회가 많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협회 명칭 노출 착신 서비스 도입

대한건축사협회+전화번호 노출 돼 신뢰성 제고



발신정보 알림 서비스 적용 화면 예시.

(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 명칭이 노출되는 전화 착신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명칭 노출 착신 서비스는 협회 유선전화로 전화 시 상대방 전화기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전화가 왔음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협회 유선전화(02-3415-6800) 발신 시 발신자 정보 미표시로 인해 지방회원의 경우 이를 스팸 전화로 오인하고 통화를 거부하거나 미응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발신 정보 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때 ‘대한건축사협회+전화번호’가 표시돼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재정국 관계자는 “회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수신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협회 명칭 노출 착신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협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막 오른 6.3 지방선거·보궐선거, “건축사 전성시대”

지방선거에 20인 건축사,

보궐선거에도 1명의 건축사 출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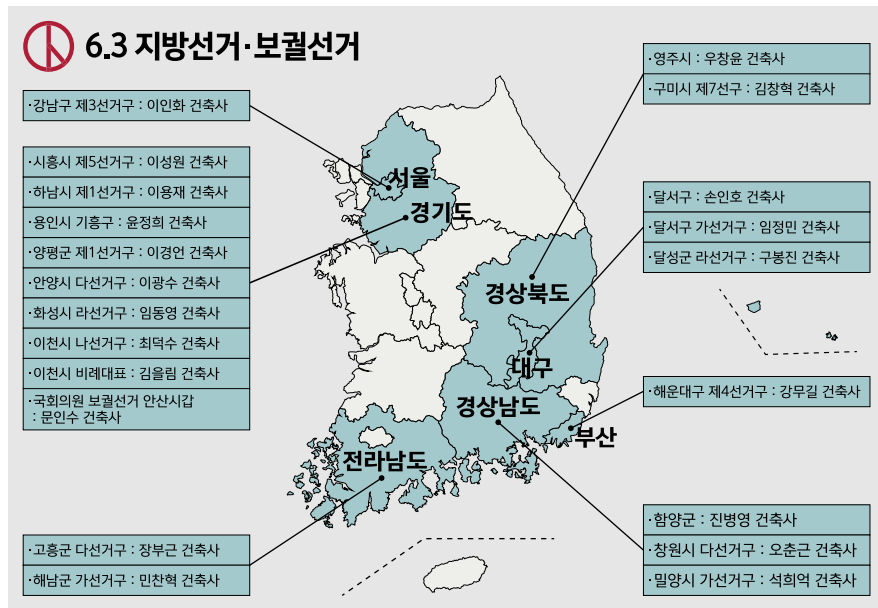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3일 본투표와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동시지방선거라는 말 그대로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선거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되고, 시·도의회원선거, 구·시·군의 의원선거, 비례대표 선거, 교육감 선거가 함께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서는 5월 12일 현재 6.3 지방선거·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밝힌 건축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총 20인의 건축사 예비후보가 등록됐다. 1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남구 제3선거구에 이인화(국민의힘) 건축사가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다. 이인화 건축사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에는 부산광역시 시의원과 부경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던 해운대구 제4선거구에 강무길(국민의힘) 건축사가, 대구 달서구에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사업 자문위원인 손인호(국민의힘) 건축사, 달서구 가선거구에는 대구광역시 건축위원인 임정민(국민의힘) 건축사, 달성군 라선거구에는 구봉진(무소속) 건축사가 등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건축사가 가장 많았다. 시흥시 제5선거구에 이성원



6.3 지방선거·보궐선거에 출마한 21인의 건축사.

(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더불어민주당) 건축사를 시작으로 하남시 제1선거구에 이용재(더불어민주당) 건축사, 용인시 기흥구에 윤정희(국민의힘) 건축사, 양평군 제1선거구에는 이경연(국민의힘) 건축사, 안양시 다선거구(만안구)에는 이광수(국민의힘) 건축사가 이름을 올

렸다. 화성시 라선거구(동탄구)에는 임동영(조국혁신당) 건축사가, 이천시 나선거구에는 최덕수(더불어민주당) 건축사, 이천시 비례대표에는 김을림(더불어민주당) 건축사의 이름이 보인다.

전라남도에서는 고흥군 다선거구

의 장부근(더불어민주당) 건축사, 해남군 가선거구에 민찬혁(더불어민주당) 건축사가 나섰고, 경상북도에는 영주시 우창윤(더불어민주당) 건축사가, 구미시 제7선거구에 김창혁(국민의힘) 건축사가 예비후보로 등록됐다. 경상남도에는 함양군 진병영(국민의힘) 건축사가, 창원시 다선거구(의창구)에는 오춘근(국민의힘) 건축사, 밀양시 가선거구에는 석희억(무소속) 건축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시·도의회 의원에는 7명의 건축사가, 구·시·군의회 의원에는 13명의 건축사가 예비후보로 등록됐으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안산시갑에 문인수(개혁신당) 건축사가 등록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신청은 5월 14일부터 15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박관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2026년도 APEC등록건축사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계획 공고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등록예정자 발표는 6월 1일 예정

대한건축사협회는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 운영매뉴얼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APEC등록건축사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계획을 공고했다.

신규등록의 경우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 ▲건축을 주된 요소로 하는 4년제 이상의 대학 전일제 교육을 이수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기간이 7년 이상인 사람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또는 실무를 하면서 적절한 복합성을 수반한 프로젝트의 참여기간 합이 적어도 3년 이상인 사람 ▲신청 직전 3년 중 3분의 2 이상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 이력이 있는 이가 신청자격을 갖는다.



(사진=APEC)

등록갱신의 경우 ▲기존 APEC등록건축사 중 미갱신자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 ▲건축사 실무교육을 3년 동안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자기 계

발 항목은 최대 9시간 까지 인정) ▲신청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제출서류는 신규등록이 ▲APEC등록건축사 등록신청서 ▲건축사 자격등록증 ▲졸업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축사사무소 운영사실 확인서 ▲4대 보험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1부 ▲참여 프로젝트 개요 등이 필요하며 등록갱신은 APEC등록건축사

등록갱신 신청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축사사무소 운영사실 확인서 ▲4대 보험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건축사 자격등록증 등이 요구된다.

서류 접수기간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제출은 이메일(apecarchitect@kira.or.kr)로 이뤄지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415-682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등록예정자 발표는 6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관희 기자

수상 그 후

박성욱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알앤에이(대구광역시건축사회)

2025 대구광역시 건축상 우수상 ‘슬로우라이프 옥수’

옥수골 산기슭의 삼각형 카페, 풍경에 들어와 안착하다

“지형과 숲을 아우르는 상징적 건축” 평가

박성욱 건축사 “외부 형태보다, 머물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싶어”



1, 2 2025 대구광역시 건축상 우수상 ‘슬로우라이프 옥수’. (설계=박성욱 건축사, 사진=김용수)

“미로처럼 이어진 계단을 따라 2층 창가 자리에 앉으니, 푸릇한 조경 뷰가 한눈에 들어왔다. 야외 테라스도 넓어서 비 오는 날 오면 더 좋을 것 같았다.”

대구의 한 방문객이 2025 대구카페 ‘슬로우라이프 옥수’를 다녀온 뒤 SNS에 남긴 후기다. 슬로우라이프 옥수는 대구 수성구 옥수동 옥수골 산책로 입구에 자리한 브런치 카페다. 박성욱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알앤에이)가 설계해 지난해 제34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우수상을 받았다. 대구시는 이 작품에 대해 “지형과 숲을 아우르는 상징적 건축”이라는 평을 남겼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다. 옥수골은 대구 도심에서도 손꼽히는 자연 자원 지대다. 맥반석을 타고 흐르는 옥수전을 따라 봉암누리길과 친환경 황토길 산책로가 이어지고, 인근 망월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져 있다.



한국 내셔널트러스트가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한 자리이기도 하다. 산책로 초입에 들어선 230제곱미터 규모의 삼각형 건축물이 바로 ‘슬로우라이프 옥수’다.

방문객들은 이 카페를 자연 풍경과 떼어 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 방문객은 “2층 창가 자리에 앉으면 푸릇한 조경 뷰가 한눈에 들어오고, 외부 공원 느낌도 있어 사진 찍기 좋았다”라고 평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카페 내부는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조용한 음악과 함께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했다. 옥수골의 풍경을 실내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한 박 건축사의 설계 의도가 카페 이용자의 경험 속에도 잘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풍경의 유입은 이야기한 대로 설계자의 의도였다. 박 건축사는 삼각형 매스의 남측 면을 시각적으로 개방했다. 옥수골 자연 풍광이 실내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장재료는 STO 외단열시스템(Linear10)을 적용해 은은한 수직 질감을 더했다. 거리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면 삼각형이라는 강한 형태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가까이 다가설수록 외벽의 결이 자연 속에 부드럽게 녹아드는 효과를 노린 선택이었다.

Q. ‘슬로우라이프 옥수’를 설계하게 된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뒀던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옥수골 산책로 입구에 위치한 약 2,000제곱미터 규모의 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230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대지 전체를 활용한 마스터플랜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건물 한 동에만 집중하기보다 넓은 대지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건물을 자연 속에 어떻게 안착시킬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형태를 삼각형으로 결정하기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형과 활용적 측면에서의 동선을 분석했을 때, 그리고 이 건축물의 용도까지 고민했을 때 삼각형이라는 형태가 자칫 자연 속에서 너무 강한 조형물로 보여 부담감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이 직관적인 형태가 단순히 눈에 띄는 디자인을 넘어 이 땅에 어울리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계속 물어야 했습니다. 결국 작업의 과정 속에서 고민한 결과물이 삼각형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Q. 그러한 점을 실제 설계에 어떻게 구현하셨는지요?

방문자들이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 건물 옆에 보존된 온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정원이다. 원래 자리하던 온실은 철거되지 않고 남았다. 역시 박 건축사의 의도다. 동선을 분리해 보존한 이 온실은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나만의 정원”을 경험하게 하는 조경적 장치로 운영된다. 음료를 받아 들고 야외 테라스나 정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은

박성욱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박성욱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알앤에이

삼각형 매스의 남측을 시각적으로 개방해 옥수골의 풍경을 실내로 적극적으로 유입했습니다. 외장재는 STO 외단열시스템(Linear10)을 적용해 은은하게 보일 수 있는 수직적 질감을 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존 대지에 자리하던 온실을 철거하지 않고 동선을 분리해 보존함으로써, 방문객이 대자연 속에서 독립된 ‘나만의 정원’을 경험할 수 있는 조경적 장치로 활용했습니다.

Q. 설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옥수골 산기슭에 자리 잡은 대지와 230제곱미터라는 소규모 건축물 사이의 비례감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엄격한 법적 제약 안에서 상업 공간의 필수 기능과 동선을 해결하는 동시에, 건물이 주변 풍경을 훼손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적정선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한된 면적 안에서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면과 단면을 수없이 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Q. 건축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진 건축적 지향점이 있다면?

장식을 배제하고 공간의 본질과 기능에 충실한 모더니즘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형태적인 간결함 속에서도 정교한 비례감과 디테일을 통해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유행을 좇기보다는 적합한 시공 기술과 재료를 바탕으로 시간이 지나도 본연의 가치와 기능성을 잃지 않는, 쓰임새 있고 단단한 건축을 추구합니다.

Q. 그 지향점을 이 작품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슬로우라이프 옥수’는 제한된 면적의 한계를 형태적 디자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마주해 본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삼각형의 형태가 주변 나무들과 어우러지고 계절마다 제각각의 분위기를 내는 것을 봅니다. 풍경 속에 삼각형태의 구조물이 뒤흔들 수 없는 없겠지만 이 질감을 가지지 않고 안착하길 바랐던 설계 당시의 목표가 잘 녹아들어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들어 내야 했던 설계자의 고민이, 머무는 사람의 동선 경험으로 환원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이용객들 동선을 보면 옥수골 산책로 초입이라는 입지 덕분에 산책과 카페를 묶어 찾는 동선이 자리 잡았다. 대지 전체를 활용한 마스터플랜으로 풀어보자면 박 건축사의 구상이 운영 단계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정필 기자

’26년 3월 주택통계, 전년동기 대비 인허가 24%↓·착공 32.6%↑·준공 45%↓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3월 기준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3월 주택 인허가는 1만9,330호이다. 3월 누계(1~2월) 5만 129호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9,625호, 지방은 9,705호로 집계됐다. 3월 아파트 인허가는 1

만5,951호, 비아파트는 3,379호이며, 3월 누계 아파트는 4만1,880호로 전년동기 대비 27.9% 감소, 비아파트는 8,249호로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3월 주택 착공은 1만8,995호로 확인됐다. 3월 누계(1~3월) 착공은 4만 5,104호로 전년동기 대비 32.6% 증

가했다. 3월 수도권 착공은 6,281호, 지방은 1만2,714호다. 3월 누계 수도권은 2만204호로 전년동기 대비 14.1%, 지방은 2만4,900호로 전년동기 대비 52.6% 각각 증가했다. 3월 아파트 착공은 1만5,813호, 비아파트는 3,182호이며, 3월 누계 아파트는 3만8,541호로 전년동기 대비 41.5%

증가한 반면 비아파트는 6,563호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3월 준공은 1만9,787호이며, 3월 누계(1~3월) 준공은 5만7,191호로 전년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3월 수도권 준공은 1만9,899호, 지방은 8,798호로 나타났다. 3월 누계 수도권은 2만8,360호로 전년동기 대비

36.0% 감소, 지방도 2만8,831호로 전년동기 대비 51.7% 감소했다. 3월 아파트 준공은 1만7,425호, 비아파트는 2,362호이며, 3월 누계 아파트는 4만9,894호로 전년동기 대비 48.2% 감소, 비아파트도 7,297호로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조아라 기자

I AM KIRA 박형주 건축사·사월건축사사무소(광주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 업무대가 성과 이후, 건축 설계 환경 개선 이끌어 주길 기대”

사용자가 일상에서 안정과 편안함 느낄 수 있는

‘밀도 높은 건축 추구’

“건축사의 전문성과 공공의 영역에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존중받았으면 합니다.” 박형주 건축사(사월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가 실제 건축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비해 정부와 대중들의 인식이 기대와 다르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특히 창의적 설계를 위한 환경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설계의도 구현·설계변경 대가 기준 마련 등이 성과로 이어져, 건축사 업무 여건 향상을 이루길 기대했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애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준 박형주 건축사를 만나보자.

Q. 건축사사무소 개소소감과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계획에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취업을 고민하던 시기에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심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취업도 이렇게 어려운데, 개소 후 이 시기를 버텨낸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 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건축사의 삶에 큰 자양분과 동력으로 작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되돌아봐도 당대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행정부터 현장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부딪히며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런 경험이 쌓인다면 건축사로서 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이며, 조금씩 성장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또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압축해 표현하면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용검사와 동시에 업무가 종료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



완도군 가용리 근린생활시설 전경.

(사진=사월건축사사무소)

니라 설계와 감리 이후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배치까지 어우러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지휘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싶은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사월건축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공간은 사용자가 오래 머물며 일상에 스며드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머물수록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목표가 됩니다. 협회에 바라는 점이라면 최근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입니다. 만약 피해를 입게 되면 사무소가 겪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Q.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건축사는 전문적인 역할에 비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설계 과정을 보면 일정과 비용논리에 밀려 설계자의 의도가 훼손되거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그런 일정과 예산에 밀려 깊이 있는 검토와 조율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지는 점입니다. 이는 곧바로 건축품질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공간 생활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건축행정 기준이 복잡하고, 지역마다 해석도 달라 실무자들의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건

축사사무소가 창의적인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기대가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4차 산업혁명 이후 우리 건축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AI가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AI를 일부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자료 정리 등에서부터 소통의 밀도를 높이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기도 하고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개설 건축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AI를 활용하면서 선·후배 및 동료들과의 교류도 확대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나누고, 기쁨을 공유해 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건축을 일궈내는 건축사 여러분에게 존경을 표하며, 저 또한 조금씩 나아지고, 꾸준히 배우며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관희 기자

서울시, 제13기 서울 공공건축가 공개 모집...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연 1회 모집, ‘전문성’ 중심의 추천 시스템 도입

서울시 건축상·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 경력자 등 우대

서울특별시가 제13기 서울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공공사업에 참여시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선진형 건축 지원 체계다.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자문·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건축의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1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인력풀은 초창기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252명 규모로 성장했다(77명 → 252명). 지난 15년간 공공건축의 혁신을 견인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공공건축 프로세스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는 서울을 넘어 전국 14개 이상 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운영 중이다.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최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디자인 품질을 획기

적으로 높이며 정책 성과를 입증해 왔다.

아울러, 대규모 정비사업의 MP(Master Planner)와 초기 단계인 ‘신속통합기획’에 MA(Master Architect)로 참여하여 도시 경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기획을 조정하는 등 서울시 행정의 핵심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는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사업 발굴 단계부터 참여하며 대한민국 공공건축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내실있는 설계공모 지침서 마련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서울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제13기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적 시각을 투입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디자인이 현장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자문 활동을 펼친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의 기획·설계·심사 ▲ 대규모 정비계획 수립 자문 ▲신속통합기획 MA(Master Architect)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업 초기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 단계의 품질 편차를 줄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설계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공간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 공공건축의 디자인 일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K-건축’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도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만큼, 공공건축가 운영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우선, 기존 2년 주기의 위촉 방식을 올해부터 ‘연 1회 모집’으로 전환해 민간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 건축가들이 서울의 주요 정책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넓히고, 우수 공공건축가는 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신진·중진’ 및 ‘마을건축가’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체계를 과감히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추천 시스템을 도입·운영해 온 것을 더욱 세분화해 용도별·규모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건축사를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 공공사업의 품질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활동 실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투명한 운영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활동이 저조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하는 등 성과 중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협력 모델을 안착시켰다는 의지다.

응모 자격은 건축사, 건축·도시·

조경 분야 기술사 또는 부교수급 이상 전문 인력이다. 서울시 건축상 및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 경력자 등을 우대하며, 전문성과 현장 기여도를 종합 평가한다.

모집공고는 지난 5월 7일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서 접수는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전자우편(publicarchitect@seoulgokr)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과정을 거쳐 6월 24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7월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아라 기자



건축업계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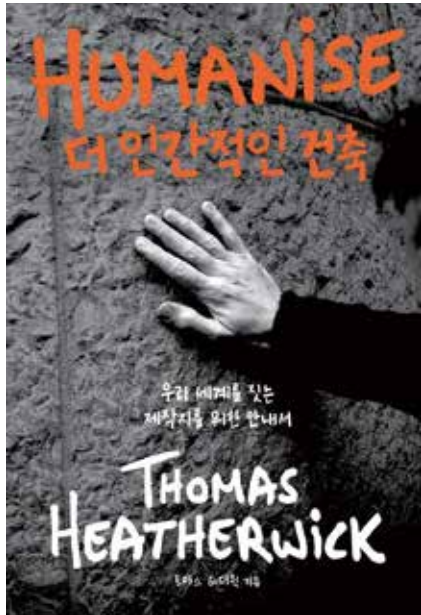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Mobile App

App Store iOS App QR 코드



이상호 건축사의 ‘다시 책으로’

르 코르뷔지에를 거세게 비판하지만, 그와 유사한 논법을 펼치는 디자이너 헤더윅



표지. (사진=알에치코리아)

HUMANISE 더 인간적인 건축 /

토마스 헤더윅 저 / 한진이 역 / 알에치코리아

오늘날 건축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고 최근 서울 한강 노들섬 설계안으로 가장 핫한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책이다. 그는 공인건축사(Registered Architect)가 아님에도 현대건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사고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의 키워드는 ‘따분함’과 ‘인간화’이다. 책의 초반부는 특색과 고유성을 잃은 박스형태의 ‘따분’한 건축물과 도시풍경들을 비판하고, 과거 100년간의 모더니즘과 자본(주의)을 이렇게 ‘따분’하게 만든 원인으로 분석한다. 후반부에서는 인간 본연의 감성(인간화)을 기반으로 하는 생기 있는 건축을 지향하며 독자들에게 이에 대한 봉기를 유도한다. 일종의 선언문이다.

저자의 논법은 다소 과격하다. ‘컬트’화 된 모더니즘이 탄생시킨 지금의 건축디자인은 ‘대체현실(253p)’과 같이 의식화된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건축교육과정에서 비현실적인 건축이론들로 포장한 품평회(학기말 크리틱)는 빼놓아진 교리를 학생에게 이식시키고 제도권 건축사(단체)들을 엘리트화하는, 저자의 표현대로라면, 우수한 건축학생들을 ‘상향마보화’하는 것이라고까지 비판한다(275p).

재미있는 점은, 저자의 ‘인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중에서 ‘정량화’하려는 시도이다. 행인(독자와 건축물의 사용자)를 통칭하여 ‘행인’이라고 한다)들이 건축물을 인지하는 적정한 거리단위(40m/20m/2m)를 제시하는가 하면, 시각적 복잡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따분측정기’를 제안하기도 한다(463p). 아직은 초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디지털화되고 AI를 이용하여 고도화된다면, 저자의 의도대로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을 듯하다.

헤더윅이 비판하는 현대도시건축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의하나, 그가 제시하는 해결방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늘날의 건축사들이 저자의 말처럼 모더니즘을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금의 디자인 원동력은 모더니즘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자가 강조하는 ‘감정(이입)’과 ‘시각적 복잡성’은, 이미 100년 전 아르누보와 50년 전 포스트모더니즘의 키워드와 중복된다. 또 다른 리바이벌운동(Revivalism)처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가 보기엔, 저자가 비판하는 논점에 걸맞은 이는 ‘미스 반 데 로에’가 적합해 보이지만, 유독 책에서는 ‘따분함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르 코르뷔지에(이하 LC)를 일관되게 겨냥한다. ‘LC의 7대 신념’이라며 설정하여 조목조목 비판하지만 한편 LC의 통상성당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경외하기도 한다.

아 이러니한 점은, 책에서 펼치는 논법과 형식이 LC의 책, 「건축을 향하여」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선언문과 같은 서술도 그러하며, 기존의 관습적인 건축양식과 건축교육(100년 전에는 에콜 드 보자르)을 비판하고, 아이폰, 3D프린터(비행기, 선박)와 같은 우리 시대의 발명품을 보여주며, 건축과 혁신을 주장한다. 책의 구성도 일관된 서식 없이 직접 그린 삽화와 화살표 같은 과격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명한 두 책의 공통점은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말미에는 ‘혁명’을 말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마저도 저자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대의 ‘기능과 기계로서의 건축’을 주창한 LC와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헤더윅이 지향점은 마치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감성을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능’으로 변환(376p)하면, 헤더윅은 LC와 대척점이라기보다는 업데이트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근대건축사에서 큰 기점이 되는 건축물과 설계자는 공인건축사가 아니었다. 수정궁(Crystal Palace)의 조셉 팩스턴도 그러했고, 엔지니어였던 구스타프 에펠도 그렇고, LC와 미스 반 데 로에도 제도권 바깥에서 성장했다. 심지어 안도 다다오도 정식 건축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헤더윅의 이 책이 「건축을 향하여」처럼 후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상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트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신진건축상 대상 확대…제44회 서울시 건축상 공모 시작



2026 제4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포스터.

(자료=서울특별시)

5월 7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모…혁신적인 건축 인재 집중 발굴

제4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가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실무경력이 짧은 신진부터 학생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혁신적인 건축 인재와 설계안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1979년 제정되어 올해로 44회를 맞은 서울시 건축상은 K-건축이 만들어내는 서울 고유의 도시·건축적 경험과 미래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국내 건축사의 활동 무대 확대, 신진건축사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건축상 ‘신진건축상’ 부문을 신설해 신진건축사 발굴과 홍보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그 대상 기준을 ‘만 45세 이하’에

서 연령 제한 없이 ‘실무 경력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21년부터 ’25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로, 건축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1작, 최우수상 2작, 우수상 4작, 신진건축상 3작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응모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최근 3년 이내’였던 신청 대상 건축물 기준을 ‘최근 5년 이내’로 넓힌다. 올해 공모부터 ‘학생 아이디어 부문’을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을 대상으로 건축상 공모 주제를 창의적으로 해석한 계획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대상은 대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올해 졸업자로, 튜터

와 함께 참가해야 하며, 시상 규모는 대상 1작, 최우수상 2작, 우수상 4작, 장려상 3작 내외가 될 예정이다.

‘제4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누리집’(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및 ‘서울시 건축문화포털 누리집’(www.architecture.seoul.go.kr, 건축문화→서울특별시 건축상→공모전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관희 기자

서울특별시 건축상

1979년 시작된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뛰어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매년 선정하여 서울건축문화제 기간 내 시상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분야에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축명장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서울시 건축문화 포털)

’26 제18회 서울건축문화제 9월 개최, 국형걸 미국건축사 총감독 위촉

‘다시 발견하는 서울’ 주제로

서울시 건축상 전시·강연·포럼·답사 등 다뤄

“서울 건축의 고유성·가능성에 관한 담론 이뤄지길”

2026 제18회 서울건축문화제가 9월 중순부터 약 1달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지에서 개최된다. ‘다시 발견하는 서울(Rediscovering Seoul)’이라는 주제로 K-건축이 만들어내는 서울 고유의 도시적 경험과 그 가능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서울의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서울건축문화제는 매년 서울시 건축상 전시를 비롯해 강연·포럼·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건축문화행사이다.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사전 프로그램으로 행사 주제에 관한 서울 도시건축 강좌가 서울도시건축센터에 개설돼, 건축, 도시, 인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4월 22일부터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yeyak.seoul.go.kr)에 서월별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진행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건축문화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2026 제18회 서울건축문화제’의 총감독으로 국형걸

미국건축사(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연임 위촉했다.

국형걸 미국건축사는 지난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를 통해 서울의 고유성을 탐구하고, 축제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정립함으로써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K-건축문화 축제의 장’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건축 흐름을 반영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형걸 총감독은 “올해 제18회 서울건축문화제를 통해 서울 건축의 고유성과 가능성에 대한 발전적인 담론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5월 사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제18회 서울건축문화제가 만들어갈 여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서울건축문화제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회에서 출발, 2010년부터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서울건축문화제로 확대 개최하였고, 매년 전시, 강연, 포럼, 답사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종합적인 건축문화 행사로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서울시 건축문화 포털)

경계위의 공공성

고정되지 않은 경계, 축적되는 공공성



도시와 건축 이야기

정선아 건축디자이너
Archimaera Architecture(New York)

공원이 제도화되기 이전, 19세기 초 유럽의 공원형 묘지를 선례로 미국에서는 ‘루럴 세메터리(rural cemetery)’ 개념이 형성되었고, 이는 도시민에게 개방된 녹지 공간으로 기능하였다.¹⁾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세메터리는 죽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일상의 일부로 작동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날 까지도 공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식된다.

이 개념은 뉴욕 브루클린의 그린우드 세메터리(Green-Wood Cemetery)에서도 잘 드러난다. 약 193헥타르 규모의 이 세메터리는 1838년에 설립되어 센트럴파크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으며, 19세기 중반에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문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산책과 나들이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다. 맨해튼에서 페리와 마차로 접근하는 주말 나들이의 목적지로 기능하며, 도시민의 일상 속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²⁾

세메터리의 공공적 성격은 현재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세메터리의 오랜 역사만큼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가이드 투어, 문화 행사를 아우르는 복합적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방문객과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분산된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기반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교육·전시·커뮤니티 기능을 아우르는 웰컴센터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ARO(Architecture Research Office)가 설계한 웰컴센터³⁾가 2026년 4월 중순 공식 개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사적 주체가 공공적 기능을 어떻게 형성

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민간 혹은 비영리 주체가 운영하면서 공공적 이용을 수용하는 공간은 드물지 않지만, 많은 경우 그 공공성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소비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반면 Green-Wood Cemetery는 별도의 이용 조건이나 소비를 전제하지 않은 채, 산책과 방문, 기억과 휴식이 뒤섞이는 도시의 일상적 흐름을 수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곳은 하나의 목적지라기보다 도시 인프라에 가까운 성격을 보인다. 이와 같은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추진방식은 행정 절차가 아닌 재단의 판단과 협업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웰컴센터는 공원과 브루클린 시가지가 맞닿는 도시의 경계부(Urban edge condition)에 위치한다. 기존의 와이어 그린하우스(Weir Greenhouse)와 연계되면서도, 스스로를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경계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택한다. 이는 도시와 죽음, 일상과 비일상 사이의 완충지대라는 장소적 특성을 건축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즉 건물은 성스러움과 공공성, 고요함과 활동성, 삶과 죽음이 중첩되는 프로그램을 담아내면서도, 과도한 상징성 대신 절제되고 담백한 톤을 유지한다.

배치는 기존 그린하우스를 L자 형태로 감싸는 방식에서 출발한다. 코너에 위치한 이 역사적 구조물을 중심으로, 신축 건물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둘러싸며 배경으로 물러난다. 이를 통해 그린하우스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하는 동시에, 재료와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신구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신축 건물은 스스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활달하면서도 차분한 배경 건축으로 기능한다.

흥미로운 점은 매스 구성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L자형 매스의 한 축은 인접 건물과 맞닿는 저층 볼륨으로



① 조감도. ② 2층 회의실 뷰.

(자료=Rafael Gamo)

형성되어 있는데, 그 상부에 실제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벽체를 연장하여 L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한 벽이 아니라, 주변 건물의 입면과 맞물리며 안정된 도시적 매스를 형성한다.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얇은 벽이 독립적으로 서 있는 인상이 아니라, 인접 건물과 함께 하나의 단단한 경계를 이루며 공원의 시작점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단순한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주어진 도시 조건을 정교하게 활용한 설계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기존 그린하우스는 조경에 둘러싸인 채 진입 동선의 일부로 작동하며, 방문자는 이를 스쳐지나 자연스럽게 신축 건물의 출입구에 도달하게 된다. 진입부에 위치한 로비는 L자형 평면의 결절점으로, 건물 양측 프로그램을 분기시키는 중심 공간으로 기능한다. 한쪽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교실이 배치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전시 공간이 이어지며, 서로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면서도 하나의 흐름 안에 통합된다.

로비 후면에는 화장실과 주방 등 지원 공간이 배치되어 전면의 공공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며, 상부층에는 재단의 사무 공간이 자리한다. 특히 2층에서는 세메터리의 고딕 게이트가 정면으로 조망되며,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 풍경 사이에 시각적

연계를 형성한다. 이는 건물 내부의 경험이 세메터리의 풍경과 지속적으로 교차하도록 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외장 재료 또한 맥락에 대한 섬세한 해석을 보여준다. 19세기 런던 크리스털 팰리스(The Crystal Palace)를 연상시키는 기존 그린하우스의 철골 프레임을 직접적으로 모방하기보다는, 이를 유약 테라코타(glazed terracotta)로 재해석하여 외피를 구성했다. 구조적 기억을 현대적 재료로 번역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이질감 없이 맥락에 스며든다.

결과적으로 이 웰컴센터는 공원과 도시가 맞닿는 경계에서, 죽음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접점을 만들어낸다. 세메터리라는 본래의 성격을 유지한 채 이를 배제하거나 희석하지 않고 일상적 이용과 병치시키며, 특정한 목적이나 이용 방식을 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머물고 지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이와 같이 공간의 사용을 열어두는 방식은, 공공성을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사용의 축적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 결과, 죽음과 일상이라는 구분뿐 아니라 공공과 사적이라는 경계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공간 안에서 사용과 경험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european-journal-of-archaeology/article/abs/landscapes-of-memory-the-nineteenth-century-garden-cemetery/E86464413D4E795100DDED0122382C4F>
2) <https://libnews.binghamton.edu/specialcollections/2013/05/14/green-wood-cemetery-exhibition/>
3) The Green-House at Green-Wood, Education and Welcome Center / 설계: Architecture Research Office / 완공: 2026

[참고문헌]
1. Architecture Research Office : www.aro.net
2. Dezeen : <https://www.dezeen.com/2026/04/24/aro-greenwood-cemetery-greenhouse>
3. The Center for Brooklyn History : <https://www.bklynlibrary.org/center-for-brooklyn-history>
4. Binghamton University Library News, Special Collections : <https://libnews.binghamton.edu/specialcollections>
5. The Atlantic : <https://www.theatlantic.com>
6. National Park Service : <https://www.nps.gov>
7. THE New York HISTORICAL : <https://www.nyhistory.org>

[사진 및 도면자료]
www.aro.net

2026년도 1분기 전국 땅값 0.58% ↑

서울 강남·용산·서초 전국 평균 상회

2026년도 1분기 전국 지가가 0.5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4분기 대비 0.03%p 축소, 2025년도 1분기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4월 24일 2026년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2026년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0.81%), 지방권(0.19%→0.19%)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으며 ▲서울 강남구(1.50%) ▲서울 용산구(1.31%) ▲

서울 서초구(1.26%) 등이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023년 3월 이후

37개월 연속 지가 상승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 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

으며, 지난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2026년도 1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025년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조아라 기자

근대건축, 다시 보기



장옥진 가옥.

(사진=국가유산청)

장옥진 가옥은 우리나라 1세대 서양화가인 장옥진이 1986년부터 세상을 떠난 1990년까지 5년간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한 곳이다.

장옥진 가옥은 한옥 2동과 양옥 1동으로 구성됐다. 한옥은 원래 1884년에 지어진 초가집이었는데, 장옥진이 1986년 기와집으로 고쳐 지어

장옥진 가옥

화실과 살림집으로 사용했다. 양옥은 1989년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졌는데, ‘자동차가 있는 풍경(1953년)’의 벽돌집을 본떠 장옥진 화가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옥진은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서양화를 공부했다. 초기에는 서양의 모더니즘 양식을 수용했지만, 1950년대 말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그리기 시작해 동양적이고 수수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완성했다.

한편, 장옥진 가옥은 2008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제404호로 지정됐다.

조아라 기자

건축사법상 건축사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등 제재



건축사 법률가이드

윤성철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이스

건축사법의 규정과 체계의 해석 상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는 단순히 건축 설계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넘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건축물의 안전, 기능, 그리고 미관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공인 제도입니다. 즉 건축사 자격 제도는 첫째, 구조적 안전 확보, 재산가치 보존을 통한 공공의 안전 및 재산권보호, 둘째, 국가시험과 실무수련을 통한 일정 수준에 다른 자에게 건축사 자격부여를 통한 전문성 담보 및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셋째, 건축물의 사유재산을 넘어서 도시 경관의 공익적 가치를 전문가에게 구현한다는 점에서 공공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건축사법 제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건축사 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 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을 통하여 타인에게 명칭사용, 업무행위,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하고 있고(건축사법 제10조 제1항), 또한 위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건축사법 제10조 제2항). 즉 현행법은 자격증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이른바 ‘면허 대여 사무소(소위 유명 사무소)’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뿐만이 아니라 알선행위 즉 직접 대여자와 차용자만 처벌이 아니라, 제3항 신설(2019. 8. 20자 신설)을 통해 명의대여 브로커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건축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

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건축사로 행세하면서 건축물의 설

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누21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 다만 만일 건축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건축사명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건축사 자신이 그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5. 16선고 97도60 판결 건축사법 위반 등).

또한 건축사자격시험 합격 후 건축사 등록을 한 후 타인에게 건축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빌려서도 안 됩니다(건축사법 제18조).

만일 이를 위반하면 첫째, 건축사법 제10조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

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 건축사자격이 취소되고(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무적 자격 취소 사유)[행정적 제재처분], 둘째,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성명모용 건축사업무 수행 조는 자격증 대여행위자 및 건축사등록증을 대여한자 그리고 각 발린자와 이를 알선한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건축사법 제39조의 2).

따라서 건축사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실질적 운영은 무자격자인 사무장이 주도하는 행위나 지분 참여형 대여형식으로 무자격자가 돈을 대고 건축사는 명의만 제공하며 수익을 나누는 행위 등은 건축사법에 위배되는 건축사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자격제도를

단지 자격제도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 담보를 통한

공익적 가치의 제도적 구현이라는

공공성에 기반하여 운영

건축사사무소 사업용자산 투자 시 세액공제



건축사의 세무 실무

황인아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아름

건축사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세제분류되며, 이는 사업자등록 상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매매계약에 따라 매입하거나 수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CAD 등 소프트웨어 그리고 국내 건축사가 국내에서 연구 및 개발하여 최초 설정등록받은 (세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한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됩니다. 이외에도 시험·연구용 장비, 직업훈련용 시설, 환경보전·에너지 절약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등),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안전시설(산업재해·화재예방, 소방시설 등)이 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고자산이나 임대용 자산, 차량·운반구, 공구, 비품, 선박·항공기, 토지 및 건축물(부속설비 포함), 구축물(공작물)에 대해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법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 세액공제)	① 중고품 및 임대용 자산을 제외 하고,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나-1.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나-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나-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자료=세무법인 아름)

국내 건축사가

최초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투

자자산명세서 및 세액공제조정명세서 포함)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시설투자 지출금액의 기본 12%(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면 14%,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25%)에 더해 3년 치 평균투자액 초과분의 10%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공제가 가능하며 남은 투자 금액 잔액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보아 전부 공제하도록 하는 집행기준(조세특례제한법 24-21-3)이 있고,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므로 투자완료일 이후 최소 2년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이 공제받은 세액에 가산되어 추징되오니 유의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무료 상담 : 세무법인 아름, 황인아 대표 세무사(contact@arumtax.com)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질문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법제처 법령해석) [21-0854, 2022.1.19.] 「건축법」제64조 제2항 본문에서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 호에서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호의 ‘바닥면적’은 거실의 바닥면적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도 포함하는지?
답변	» 「건축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각호의 ‘바닥면적’은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함. » 「건축법」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제1호),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내 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제2호)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으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거실의 바닥면적으로만 제한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질문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법제처 법령해석) [21-0540, 2021.12.16.] 전체 건축물의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층부터 8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 9층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제6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제6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함. » 「건축법」제64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추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이나 특성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제64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용도가 다르고 구조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일부에 대해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인기상영작 다시보기 신청 접수

역대 상영작 382편 중 29편 엄선

건축과 영화의 문화적 만남을 통해 건축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인기 상영작 다시보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역대 상영작 382편 중 관객

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과 담당 프로그래머가 직접 엄선한 29편의 작품들로 구성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인기 상영작 다시보기’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기상영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자료=대한건축사협회)

는 스펀블룸 감독의 ‘레베렌츠, 어둠의 성역’과 알렉산더 로렌츠 감독의 ‘건축의 선구자 페터 베렌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제프리 바와, 알바루 시자, 예른 웃손 등 다양한 건축사의 비하인드와 압도적이고 거대한 건축물의 전경을 담은 건축영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www.kir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된다. 상영작은

MP4 또는 DCP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3416-6907)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종합예술이라는 장르로 하나 되는 건축과 영화를 통해 건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2009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이다. 박관희 기자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2026년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기 축구대회가 4월 3일 잠실유수지공원 어울림축구장에서 개최됐다. 축구동호회 회원들의 체력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서남권 축구동호회 5개 팀이 참가했으며, 강남구지역건축사회가 우승, 서초구지역건축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삭발투쟁으로 ‘결사반대’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4월 20일 건축사회관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 개정이 건축안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서울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은 “안전은 결코 효율성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도시공간전략 대전환 국제컨퍼런스’ 참여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강미숙 회장은 3월 26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도시공간전략 대전환 국제콘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공간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건축사회 강미숙 회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부산은 해양과 수변, 산지 지형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로, 획일적인 도시공간 전략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권 중심의 공간 재편과 보행·근접성 기반 도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2026년도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4월 27일 대구건축사회관 2층 창조홀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최원식 회장은 “위원 개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건설경기 상황과 급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건축사 권익보호와 협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건축사회, 2026 위원회 통합 워크숍 개최



대전광역시건축사회는 4월 27일 위원회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전건축사회 조한묵 회장과 임원, 각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협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위원회별 2026 추진현황 보고 및 위원회의 소통과 화합을 꾀한 대전건축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권익향상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건축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충남테마건축기행’ 성료



충청남도건축사회는 충청남도청 및 시·군청 건축직 공무원들과 충남 건축사들이 함께하는 ‘진주 건축기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건축기행에는 총 103명이 참석해 공공과 민간 건축 전문가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공고히 했다. 이번 건축기행은 도청 및 시·군청 건축직 공무원들과 건축사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건축 행정과 실무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건축사회는 “이번 기행을 통해 공공과 민간 건축 전문가들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진주 건축기행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지역 건축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건축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전국 건축사 결기대회에 회원 100여 명 동참



충청남도건축사회는 5월 8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건축사 결기대회에 회원 10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충남건축사회 회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체공사감리는 철거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시정 요구를 수행하는 핵심 안전관리 제도로 평가된다.

충남건축사회 관계자는 “해체공사감리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업무”라며 “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향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라남도건축사회, 강진군·영광군과 MOU 체결



전라남도건축사회가 강진군, 영광군과 재난 피해주택 신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감리비 감면 및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건축사회는 4월 1일 강진군과, 이어 4월 28일 영광군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시위원회 발족위촉식 진행



전라남도건축사회가 4월 28일 AI 위원회 발족과 위촉식을 가졌다. AI 위원회는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고, 실무에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해 건축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을 갖고 발족됐다.

경상북도건축사회, 신입회원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건축사회는 5월 6일 안동스탠포드호텔에서 신규입회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입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상북도건축사회 소개와 건축사회에서 진행 중인 사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제도와 건축사 업무지원시스템을 안내하고, 신입회원들 상호 간의 소개와 의견을 나눴다.

경북건축사회 송동훈 회장은 “신입회원들이 건축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건축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2026년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경상남도건축사회는 4월 30일 창원힐마루CC에서 회원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한 2026년 경남건축사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회원 및 내빈 등 총 212명이 참석해 53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및 전국 10개 시도건축사회 회장과 건축사공제조합 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경남건축사회 정일현 회장은 “오늘 대회를 통해 다진 결속력을 바탕으로 우리 협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편집출판팀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적용처 주방/화장실/샤워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02)461-3000 www.FFR.co.kr

대표사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농협/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경영 전문가의 재밌는 경제이야기

김남국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march@donga.com)

파타고니아가 던진 메시지...진정성과 경계심 줄이기



꼭 우리 제품이 아니어도 된다는 광고에서 진정성을 느낀 소비자들이 구매에 나선다. (사진=pixabay)

선범(Sun Bum)이라는 회사가 있다. 해변의 서퍼들을 위한 선크림을 만드는 미국 회사다. 창업자들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서퍼들은 누구보다 강한 햇빛 아래 오래 머물지만, 의외로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끈적거리고, 눈에 들어가 따갑고, 물에 잘 지워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서퍼들이 진짜 쓰고 싶어 하는 선크림”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로 아주 독특한 문장을 내세웠다.

“우리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선크림은 꼭 바르세요.” (We don't care if you use ours. JUST USE SUNSCREEN.)

이 문장은 일반적인 광고와는 정반대다. 대부분의 광고는 “우리 제품이 최고다”, “당장 구매하라”고 외친다. 그런데 선범은 “꼭 우리 제품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에 더 강하게 끌렸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는 미국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커다란 자사 재킷 사진과 함께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Don't Buy This Jacket.)

보통 기업들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애쓴다. 그런데 어떤 “사지 마라”고 말한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광고가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이유는 무려 다섯 가지나 된다.

첫째,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린다. 사람들은 광고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경계한다. “또 뭘 팔려고 하는구나”, “과장하겠지”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설득 저항(psychological reactanc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기업이 갑자기 “안 사도 괜찮다”고 말하면 예상했던 패턴이 깨진다. 뇌는

순간 멈춘다. 그리고 경계심이 줄어든다.

둘째, 진정성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은 “이 회사는 단기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는구나”라고 느낀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비용이 드는 신호(costly signal)’라고 설명한다.

셋째, 소비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한다. 누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긴다. 하지만 “안 사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 고객들은 자신의 선택권을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는다. 브랜드 호감도는 더 커진다.

넷째, 브랜드를 하나의 가치관으로 만든다. 파타고니아는 단순히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 환경 보호라는 철학을 중시한다.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한 이유는 과소비를 줄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브랜드는 물건이 아니라 소비자의 정체성이 된다.

다섯째, 예상 밖의 메시지는 강한 주목을 끈다. 수천 개 광고가 “사세요”라고 외칠 때 혼자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자동으로 그 쪽으로 향한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패턴보다 낯선 패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광고업계에서는 이를 패턴 인터럽트(pattern interrupt)라고 부른다.

물론 이런 전략에도 함정은 있다. 진짜가 아니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면서 실제 행동은 다르면 소비자들은 빠르게 알아챈다. 파타고니아가 특별했던 이유는 광고 때문만이 아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제품 수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새 제품 구매보다 오래 입기를 권장했으며, 환경운동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이렇게 존재 이유가 분명한 브랜드는 사람들의 강한 호감을 끌어낼 수 있다.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가야 문명의 중심, 김수로왕릉(金首露王陵)



수로왕릉의 전경.

(사진=김진섭 건축사)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김해 김수로왕릉(金海 金首露王陵)’(사적 제73호)은 단순한 고대 유적을 넘어, 한반도 남부에서 찬란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가락국(금관가야)의 시조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의 안식처이다.

왕릉 구역 안에는 수로왕의 위패를 모신 팔전 중 하나인 숭선전(崇善殿)과 안향각·전 사청·제기고·납릉정문 등 건물들과, 신도비·문무인석·마양호석·공적비 등의 석조물들이 있다. 원래 가야 때 수로왕 사후에 지은 빈궁(賓宮), 신라 문무왕 때 지은 사당이 있었으나 수백 년이 지나면서 대부분 소실되었고, 조선시대에 왕릉의 격에 맞추어 여러 석물 및 시설을 추가해 지금까지 전한다. 높이 약 5미터, 지름 약 22미터의 웅장한 봉분은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해의 중심을 지켜왔다.

가야의 탄생과 수로왕의 전설

수로왕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국유사’ 가락국기(駕洛國記)에 기록된 탄생 설화를 살펴봐야 한다. 서기 42년, 김해 구지봉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홉 간(九干)이 모여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라는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상자 안에는 여섯 개의 황금알이 들어 있었고, 그중 가장 먼저 깨어난 아이가 수로(首露)였다. 가장 먼저 태어난 수로는 6가야의 맹주인 금관가야의 왕이 되었으며, 나머지 다섯 명은 각기 다른 가야의 왕이 되었다. 수로왕은 뛰어난 정치력과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낙동강 하류를 장악하며 강력한 해상 왕국을 건설했다.

수로왕릉은 이러한 신화 속 인물이 역사적 실체로 자리 잡은 상징적인 공간이다. 비록 건국 초기에는 소박한 무덤이었을지라도, 가야의 국력 성장에 따라 점차 격식을 갖춘 왕릉으로 변모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궁과 태극전.

(사진=김진섭 건축사)

왕릉의 구성과 문화적 상징

수로왕릉은 ‘능’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수호하고 제례를 올리기 위한 수많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 왕릉은 평지에 조성된 원형 봉토분이다. 능 앞에는 상석(床石)과 향로석이 놓여 있으며, 좌우에는 문인석, 무인석과 함께 말, 양, 호랑이 모양의 석수(石獸)가 배치되어 있다.

숭선전(崇善殿)은 수로왕과 왕비 허황옥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당이다. 매년 봄과 가을에 거행되는 대제(大祭)의 중심 무대이기도 하다. 숭안전(崇安殿)은 가락국 2대 왕부터 9대 왕까지의 신위를 모신 곳으로, 가야 왕조의 계보를 잇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왕릉으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신성한 구역임을 알리는 홍살문이 서 있고, 이를 지나면 웅장한 2층 누각인 가락루가 나타난다. 가락루는 방문객들에게 가야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듯한 위엄을 느끼게 한다.

수로왕릉에는 여느 왕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신비로운 문양과 상징들이 남아 있다. 이는 수로왕비 허황옥이 인도 아요디아 왕국에서 바닷길을 건너왔다는 전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왕릉의 정문인 납릉정문(納陵正門)의 대들보 위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마주 보고 있는 ‘쌍어문(雙魚紋)’이 새겨져 있다. 이 문양은 인도 아요디아 지역의 사찰과 건축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장(紋章)으로, 가야가 고대부터 인도와 해상 교류를 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능 인근에는 허황후가 배에 싣고 왔다는 파사석탑(婆娑石塔)이 보존되어 있다. 이 석탑을 이루는 돌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붉은빛의 옥문 무늬를 띠고 있으며, 닭 벼슬 피를 흘렸을 때 굳지 않는다는 기묘한 실험 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신비한 영험을 자랑한다. 수로왕릉은 현재도 살아있는 역사이다. 전국의 수백만 김해 김씨, 김해 허씨 후손들에게 이곳은 가문의 뿌리이자 조상을 기리는 성지이다.

매년 음력 3월 15일(춘향대제)과 9월 15일(추향대제)에 거행되는 제례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엄격한 절차와 전통을 자랑한다. 수천 명의 종친이 모여 가락국 왕들의 덕을 기리는 모습은 고대 왕국 가야가 오늘날에도 혈연과 문화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라온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시로 보는 세상

모르핀 속의 아틀란티스

- 서요나

푸른 체육복 아래 덮인 네가
늪은 새처럼 잠들어서

창틀에서 말라 가서 캔버스화

방향이 너무 오래 안 끝나면 나를 찾아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두 귀에 꽃힌 이어폰 잡아 빼며 저 뒤로
달려 나가고

사람들 나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고
철새들 내가 아는 곳으로 떠나가고

교탁 위에서 멈추지 않고

주인 없는 럭비공이 흔들려서

지각쟁이 부처님

용기 내렴

소문도 꿈속으로는 따라오지 않는단다

이 세계에서 너를 깨울 수 없는 것들이
내 몸속에 다 들어 있어서
뒤돌아 몰래 운 적이 있었다

- 서요나 시집 『병하기를 날아 북아현동
을 기어 토성의 금요일까지』 중에서/
파란시선/ 2026년

늪은 어느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를 찾아온다. 부모들은 잘 모르겠지만
열다섯 살 소년이 일흔 살 노인처럼 여겨질
때도 있듯이, 정을 나눠야 할 가까운 사람들
의 일보다 때로는 철새들의 긴 여정에 더 사
무침 때도 있다. 어떤 소문은 더 그럴 것이다.
어쩌면 꿈속에서는 더 극악한 장면들이 연출
될지도 모른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에서는 그런 고통이 정물화처럼 아프게 그
려져 있다. <함성호·시인>

포토 에세이



(사진=정병협 건축사)

몽골의 광활한 초원, 동물들이 무리 지어 모여 있어서 걸음을 멈춘다. 회색빛의 몽골 염소들이 푸른색이 섞인 나선
형의 풀을 고고한 왕관처럼 이고 서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단자로 표현되는 염소인데 무리 중 한 마리가
나를 그윽하게 쳐다본다. 렌즈를 통해 녀석의 선한 눈빛과 마주한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이 느껴진다. 짧은
순간이 긴 여운으로 남는다.

정병협 건축사·나은 건축사사무소(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전통건축의 무형적요소 공(空)과 간(間)

건축과 삶

정종민 건축사

명인 건축사사무소

(전라남도건축사회)



건축은 외부공간이나 내부공간을 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건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
간, 비물질과 정신, 이성과 감성. 이것들과
건축물의 일체감 속에서 만이 진정한 도
시를 만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렇다고 건축은 공간적 요소만으로 성
립되는 것은 아니다. 공학(구조)적·미

적·기능적인 요소도 포함해서 인간의
삶과 함께 건축물을 복합적으로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건축의 기본이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면 공(空)과 간(間)
을 분리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먼저 공(空)이다. 공은 만질 수도 측정
할 수도 없기 때문에 3차원의 실재가 아
니다. 형태의 고정성을 보는 것을 부정하
는 형이상학적인 단어이다. 공은 어디까
지나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은 허공일
수도 있다. 비어있는 공을 인식하면 그 경
험적 인식은 그대로 절대적 진리의 인식
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존
재는 공간에서 상호의존성에 의해 경험
적 실재로 표현된다.

이어서 간(間)은 사이 또는 틈의 의미
이다. 계량의 개념으로 공간의 거리, 기둥
과 기둥사이 또는 구획의 명시, 즉 ‘시간
의 거리’를 의미한다. 시간의 계량을 구성
하고, 동시에 좌정된 시간에서 간격으로
발휘되는 사이의 의미도 내포한다. 이러
한 공간체계 속에서 우리는 서양건축을
받아들이면서 자수(尺數)를 무시했다. 길
이나 면적을 미터법으로 사용했으며, 주
간(柱間)이나 벽 등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크기도 미터법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
양학문의 기준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통건축의 모듈(Module)인 자수가 주택
이나 가구 등에서 널리 쓰인다. 또한 전통
건축에서 간의 개념 중 입면에서는 정면

및 칸, 측면 몇 칸으로 따진다. 평면에서
는 기둥 4개를 기준으로 한 칸을 잡았으
며, 가로*세로 단일 칸을 한 칸으로 따져
전체칸수를 정했다. 따라서 전통건축의
칸수는 동수마다 기둥 4개를 기준으로
합해진 숫자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규범
의 규모해석이다.

결국,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에
사람을 집의 공간에서 떼어 놓을 수 없
는 옷과 같은 일체감을 의미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 건축사들은 공간구성
을 할 때 사람의 정서까지도 아우르는
건물을 설계해야 함은 물론, 전통건축의
공과 간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쾌적하
면서도 조화로운 좋은 공간을 설계해야
겠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부당한
일 앞에서 눈을 감지 못하는 탓인지, 그
모든 생각의 끝에 남은 질문은 결국 하
나였다.

‘건축사(建築士)로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익숙한 실무의 관성에 빠져 기계적으
로 도면 위에 선을 긋고 나의 안위만 쫓
다 생을 마감한다면, 과연 나 스스로 ‘참
잘 살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세
상에 의미 있는 흔적 하나쯤은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뼈 아픈 자각이다.

나는 서울시건축사회 음악 동호회에
서 피아노를 친다. 같은 음이라도 단단하
고 명료하게 건반을 누르면 소리의 깊이
와 의미가 달라지고, 동일한 악보라도 연
주자에 따라 전혀 다른 곡이 된다. 피아
노의 페달은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찰나의 건반 소리를 길게 늘여주고 빈
공간을 채우며 깊고 단단한 울림을 빚어
낸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악보 앞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서툰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과 부
딛힐 때도 있겠지만, 내 안에 흐르는 선
울만큼은 아름답기를. 내가 설계하는 공
간이 나를 과시하는 차가운 매스(Mass)
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꺼이 곁을 내어
주는 따뜻한 여백(Void)이 되기를 원한
다. 거창한 작품 설명 없이도 조용한 위
로가 되고, 그 묵직한 선율이 나의 도면
과 남은 인생 위에도 단단하고 고스란히
배어들기를 바란다. 내 삶의 궤적이 마치
피아노의 페달처럼 누군가의 고단한 일
상에 닿아 조용한 위로와 울림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은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
거나 알파한 철학을 뽐내기 위해 쓴 것
이 아니다. 5년, 10년, 그리고 20년 뒤의
나 자신에게 남기는 다짐이자, 도면 앞
에서 고뇌하는 동료 건축사들에게 건네는
연대의 안부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도
면 앞에서 고독하게 사투하고 있지만, 그
치열함이 결국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멋진! 일임
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익숙한 업무의
무게에 밀려 다시 관성적으로 펜을 쥐려
할 때, 이 글을 꺼내며 스스로에게 묻고
자 한다.

지금 너의 삶은, 그리고 너의 도면은, 진
정 누군가를 향해 단단하고 깊은 울림을 빚
어내고 있는나고.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건축만평

강정삼

건축사·아키텍그룹 건축사사무소(부산광역시건축사회)



행정효율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

대한건축사협회

THE ARCHITECT NEWS

건축사신문

5,000부 발행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김재록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박정연

인쇄인 장용호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편집출판팀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5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다0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KAFF 2026

한국건축산업대전

TRANSFORM

건축, 전환의 중심에 서다.

2026. **10.28**(수)~**30**(금)

COEX D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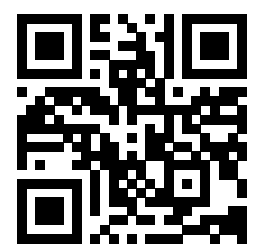
AI·스마트 건축·친환경·모듈러

전시분야

건축·인테리어·건축IT
건설기술·기계설비
정책홍보·작품전시

동시개최

KAFF포럼
건축사실무교육
건축자재설명회



2026

KAFF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참가신청서 접수 및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T. 02-3415-6876, 6877

E. kaff@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